

# 북한의 협상전술과 대응방향

## - 남북 고위급접촉 및 공동합의문 타결을 중심으로 -

김규남\* · 이현희\*\*

### 요 약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적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법 기습남침을 하였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 이후에도 약 5,000여 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도발을 자행하였다.

특히,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하여 동년 5월 24일 단행된 5·24대북 제재조치 상태에서도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하였으며 지난 2015년 8월 4일 또다시 DMZ 목함 지뢰 도발을 하였다. 우리군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여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자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파국으로 가던 중, 남북한은 협상을 시도하여 고위급접촉 과정과 그 결과 공동합의문을 타결하였다. 이러한 고위급접촉을 보며 우리는 너무나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향후 계속될 북한과의 협상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북한의 협상전술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 North Korea's negotiating tactics and the corresponding direction

## -Based on the agreement concluded by inter-Korean high-level contacts-

Kim Gyu Nam\* · Lee Hyun Hee\*\*

### ABSTRACT

North Korea invaded South Korea on June 25, 1950 and the armistice agreement was reached on July 27, 1953. After that, there have been about 5,000 provocations large and small.

In particular, North Korea attacked a naval vessel called "Cheonanham" on March 26, 2010. After the attack,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o called "May 24 sanctions". North Korea bombarded Yeonpyeong provocation on November 23, 2010 and they planted wood box mines in the DMZ on August 4, 2015. The explosion of them resulted in injuring two Korean soldiers. In response to this accident, Korean government resumed loudspeaker broadcasting against North Korea in 11 years which had developed as the psychological warfare. After this, North Korea declared "being a state of war" and intensified tension. Suddenly North Korea suggested talks and two countries reached an agreement through inter-Korean high-level contacts. But we should review whether the agreement was reached with ease and in haste. This paper focuses on the North Korea's negotiating tactics and suggests our corresponding directions for the future.

**Key words : North and South Korea, high-level contacts, joint agreements**

접수일 2015년 9월 4일, 수정일(1차:2015년 9월 18일),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23일

\* 신성대학교 군사학과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 박사과정 (교신저자)

## 1. 서 론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분단되어 이제 70년을 맞고 있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분단된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에는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도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적,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법 남침을 하였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 이후에도 약 5,000여 회에 이르는 정전협정 위반과 크고 작은 불법도발을 자행하였다.

최근 북한군의 DMZ 목함 지뢰 도발과 이어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국면은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공동합의문 발표 형식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남북은 지속적인 긴장관계가 유지되었다. 특히 남북관계가 때로는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크고 작은 상황에도 주변국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힘의 균형이 유지되며 첨예한 대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해체된 냉전구도와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1990년 9월 제1차 고위급 회담을 시작하여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과거 구소련의 권고에 따라 1991년 9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NPT에는 1985년 가입하였다가 1993년 3월 12일 탈퇴했고 지금까지 핵 개발을 지속하였다(제성호). 하지만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에 따른 김정일 후계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연속되는 북한 지역 대홍수로 일명 고난의 행군 기에는 선군정치를 표방하여 겨우 체제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1998년 이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기사화생한 북한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협력 사업에 힘입어 현재 김정은 정권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남북 협력이 활발한 가운데에서도 북한의 대남 불법도발을 계속하였다.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 2차례에 걸친 연평해전을 비롯하여 2010

년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하여 이명박 정부로부터 2010년 5월 24일 단행된 5·24대북 제재조치 상태 하에서도 지난 2010년 11월 23일에는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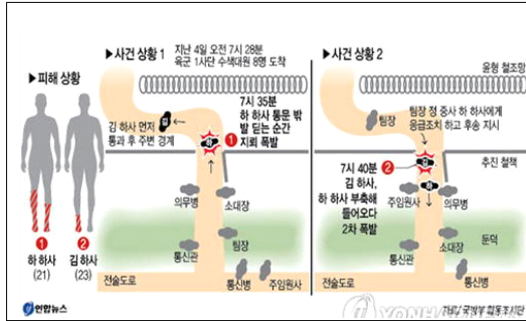
북한군은 2015년 8월 4일 또다시 DMZ 목함 지뢰 도발을 하였고, 그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은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통해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였으며 북한군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공격 준비를 위한 전력을 운용하면서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은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한 마라톤협상 끝에 공동합의문으로 타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이번 북한군의 DMZ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계속된 불법 도발 과정에서 남북한의 고위급이 접촉 과정에서 시작된 기선잡기와 접촉 및 공동합의문 타결 결과를 보면서 북한의 협상 전술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최근 북한군의 도발

### 2.1 우리군의 발표

우리군은 2015년 8월 10일 오전 발표에서 “8월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 중이던 우리 측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북한 목함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북한군의 이번 DMZ 목함 지뢰 매설은 7월 26일에서 8월 1일 사이로 추정되며 목함 지뢰의 매설 위치는 군사 분계선 이남 440m 지점의 우리 측 추진 철책 통문에서 남쪽으로 25cm 지점이었다. 해당 통문은 우리 측 수색대원이 DMZ에 대한 순찰을 할 때 통과하는데 (그림 1)에서와 같이 지난 8월 4일 07시 28분 수색작전 중이던 김 하사가 먼저 통과한 후 이어서 하 하사 통과하면서 1차로 2발 폭발이 일어났으며 07시 40분 김 하사가 부상당한 하 하사를 부축해 나오면서 2차로 1발이 폭발하였다.



(그림 1) 지뢰폭발 상황개요  
(출처 : 연합뉴스 '15.8.15)

이에,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과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 조사팀은 8월 6~7일간 합동 현장 조사 결과, “현장에서 수거한 철제 용수철, 공이 등 5종 43점이 북한제 목함 지뢰와 일치했다”라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목함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로 판명됐다” 라고 발표하였다. 합참은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군대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합참브리핑에서는 목함 지뢰 폭발 현장과 목함 지뢰 파편, 폭발 당시 TOD 영상을 공개하였다(연합뉴스 TV).

## 2.2 북한군은 왜 도발 했나

이번 북한군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당시 실시 예정이던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트람가디언(UFG)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그동안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지 등에 대한 위협이 수사가 아니라 실제 행동이라는 점을 과시하려 했다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8월 5일 오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을 위해 백마고지역(강원도 철원군 소재)에 참석할 것인가를 떠보기 위한 술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군 전승절 기념행사의 참석을 고려하자 중국과의 불편한 의도 표시 등 다양하게 추측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은 대남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며 이번 연속적인 도발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것과 지금 이 순

간에도 도발에 대한 예측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 2.3 국내 일부 세력의 동향

국내의 일부 세력들은 북한의 주장과 연계하여 왜 사고발생 후 6일이 경과한 다음에야 발표하는가? 또는 북한군이 매설하는 TOD 영상은 공개하지 않는가 등의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기류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8월 6일부터 7일까지의 합동 현장조사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왜 군 수뇌부는 실시간 보고를 받고도 지연 발표를 했느냐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정부와 군 당국도 바로 발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계속 전개되면서 전역을 연기하는 장병이 늘어나고 해의 유학생과 예비역들의 SNS 상에서의 결전 의지는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 도발에 정부와 군의 미온적인 대응에서 이제는 한 번 해보자는 적극적인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광복과 동시에 분단 70년을 돌아보면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적화통일 노선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시각과 상식을 넘어 더욱 교활한 전략전술 방법은 계속 진화되고 있다.

## 2.4 최초, 정부와 군의 대응

과거 천안함 폭침 시에는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보복 공격을 못했고 연평도 포격도발 시에는 전투장비의 고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이밍을 놓쳤고 원점 타격을 제대로 못 했다. 하지만 이번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애국심이 충만한 국민들의 생각은 목함 지뢰 폭발 지점으로부터 최근 거리의 적 GP를 타격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군 당국 입장에서의 대응공격은 아군이냐 민간인이 공격받은 상황에서만 가능하기에 우리 군이 보복 공격을 했다면 어쩌면 우리 군이 침략 내지는 오히려 도발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또한 이번 도발이 DMZ 수색 경찰시 갑자기 발생한 상황에서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공격시 명확한 사

유가 필요한데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했다. 군에서는 부상자 후송이 최우선이고 당시 목함 지뢰 폭발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장조사 후 우리군의 발표 역시 ‘북한이 유력하다 내지 확실시’라는 표현 외에 결정적 증거가 없어 대응공격이 어려웠을 것이고 영악한 북한군은 그 점을 백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과거, 연평도 포격도발 시에도 우리 국민은 즉각적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1.2%였다.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58.0%였다. 이번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군 당국은 교전규칙을 들며 의도적 도발에 대해서는 자위권 행사를 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군의 작전권은 평시 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이 있는데 평시 침투 및 국지도발 작전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작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실시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사건 조사 결과 발표 후 우리 군의 대응은 무력 보복이 아닌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였고, 대북 심리전 방송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의 요구에 의해 갑자기 중단되었다가 연평도 포격도발 시 다시 방송장비 설치 준비를 했지만 북한군의 조준격과사격 등을 이유로 부분적으로 유보되다가 이번 11년 만에 재개하였다. 최초 일부에서는 그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지만 북한이 먼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의할 정도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어 북한이 군사적인 공격보다 더 두려워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였다. 8월 10일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표(1)에서와 같이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DMZ내 목함 지뢰폭발 사고가 북한군의 도발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번 도발에 따른 북한군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또한 당일 오후 5시 국방부에서는 2004년 이후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를 결정하여 파주 1사단지역과 중부지역인 연천 등 중동부 전선과 서부전선 11곳 등에 대북 확성기로 심리전 방송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13일 북한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장성급 1차 회담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거부하였다.

<표 1> 북한군 DMZ 목함 지뢰 도발 및 경과

구 분	주요 내용
8. 4. 07:40	북 DMZ 목함 지뢰 도발(2명 부상)
8. 10. 오전	대북 경고 성명
8. 10. 17:00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결정
8. 11.	정부 도발로 규정, 책임자 처벌 촉구
8. 13.	유엔사 장성급 회담제의(2), 북한거부
8. 15.	조선 인민군 전선 사령부 공개 경고
8. 17. 오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UFG) 개시
8. 20. 15:53	북, 14.5밀리 고사포 도발(1발)
8. 20. 16:12	북, 76.2밀리 평곡사포 도발(3발)
8. 20. 17:04	남, 대응사격(29발), 진돗개하나 발령
8. 21. 오전	북한군 준전시상태' 선포
8. 21. 16:00	북, 고위급접촉 제의/남, 역제의(18:00)
8. 22. 18:00	남북 고위급 접촉
8. 25. 12:55	남북 공동선언문 타결

근거 : 청와대 및 국방부 8.10~8.25일 발표 제정리

### 3. 남북 고위급접촉 과정

#### 3.1 북한군 목함 지뢰 폭발과 초기 대응

2015년 8월 4일 발생한 북한군의 DMZ 목함 지뢰 도발과 한미 특별조사팀의 합동현장조사 결과, 북한군의 명백한 도발로 판명된다는 보고를 받은 청와대는 8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DMZ 목함 지뢰 도발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하

8월 11일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DMZ 목함 지뢰 폭발을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하였다. 8월 13일에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북한에 장성급 2차 회담 제의를 하였고 이 제의도 북한은 거부하였다. 북한 당국은 8월 15일 조선인민군전선사령부의 공개경고장이라며 확성기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북 심리전

수단 파괴 및 군사행동 개시를 경고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미 연합 사령부 및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군사연습을 통보하였으며 17일부터 28일까지의 일정으로 연습을 개시 훈련을 마쳤다.

### 3.2 북한군 추가도발 및 상황악화

북한군은 8월 20일 오후 3시 53분 육군28사단 예하 부대 인근 야산에 14.5mm 고사포 1발을 사격하였다. 당일 오후 4시12분에는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m 부근에 76.2mm 직사화기 3발을 추가 도발 사격하여 우리 측 접경지역은 오후 4시 15분에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다. 북한은 계속적인 도발에 이어 오후 4시50분에는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가 김관진 청와대안보실장에게 서한을 보내 확성기방송을 중단하는 실천적 조치를 요구하며 불응 시 군사행동을 개시한다는 위협을 하였으며 이번사태 수습과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북한은 이어서 오후 5시 서해 군통신선을 이용, 조선인민군총참모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여 확성기방송을 중단하는 실천적 조치 요구와 방송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였다. 이에 적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오후 5시4분 우리군은 군사분계선 북쪽 500m 부근에 155mm 자주포 포탄 29발로 대응사격을 하였으며 6군단은 최고수준의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였다. 당일 청와대는 오후 6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우리군의 대북확성기방송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으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최후통첩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남북관계의 긴장상황이 급박한 21일 오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남한 시간 오후 5시30분)부터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오후에는 3군사령부를 방문하여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이고 중대한도발이라고 규정

하고 향후 책임은 북측에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통일부에서는 홍용표장관 명의로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북측이 접수를 거부하였다. 또한 당일 오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3.3 남북 고위급접촉 과정 및 타결

8월 21일 오후 4시 북한 김양건 조선노동당비서 명의의 통지문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에게 발송되어 21일 또는 22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제의하자 당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는 김관진 실장 명의로 "대상자는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 정치국장으로서 하자"고 역제의 하였다. 오후 7시에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긴장조성행위 반대" 논평을 하여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오후 8시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 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에 22일 오전 북한외무성은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목숨으로 지키기 위해 전면전도 불사할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합참의장은 미 합참의장과 "북한의 추가도발 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한다"는 한미 공조를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은 오전 9시 35분 황병서명의로 통지문을 재 발송하여 "북측의 총 정치국장 황병서와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 남측의 김관진 국가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등 2대 2로 접촉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오전 11시25분 청와대는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며 오후 6시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의 회의를 약속하였다. 이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의 연장선상에서 오전 11시부터 한·미 연합 공군의 전투기는 무력시위를 하였으며 오후 3시에 청와대는 당일 오후 6시에 판문점에서 남북 '2+2 고위급 접촉 합의'를 발표하였고 오후 6시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시작되었다. 또한 23일 오전 4시15분에 남북 고위급접촉이 정회되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최근 조성된 사태 해결방안과 남북관계 발전방안 폭넓게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3일 오전 한미 정보자산운용 결과 북한잠수함 약 50

여 척이 기지를 이탈하였으며 북한의 포병전력도 2배 증가하였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연합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 III에서 II로 한 단계 격상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24일 오전, B-52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시기 검토방안을 발표하는 등 그러한 상황에도 2+2 남북 고위급 접촉은 계속 이어졌으며 마라톤협상은 25일 오전 12시55분에 극적으로 타결되어 당일 오전 2시 남북고위급 공동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 4. 북한의 협상전술 형태

이번 남북 고위급접촉 과정과 타결결과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협상의 목적은 자유진영이 원하는 분쟁의 해결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최대석 외의 ‘북한의 대남 협상전술과 주요 협상가.’에 의하면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은 싸움의 과정에서 상대를 기만하기 위한 분쟁의 잠정적 유보 내지 그들이 추구하는 혁명투쟁의 연속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대부 레닌은 “적과 화해를 구하는 것은 역량을 비축하기 위한 수단이며, 평화는 전쟁준비를 위한 일종의 휴식”이라고 했으며 협상을 통해 언젠가는 달성해야 할 목적을 위해 힘을 쌓고 대중에게 혁명 필승의 신념을 가르친다는 명분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개념은 공산주의 혁명과정의 과정이며 전시에는 전쟁의 연장으로, 평시에는 형태를 달리하는 혁명투쟁의 계속으로 간주한다. 김일성 역시 “대화건 협상이건 우리는 적을 날카롭게 공격해서 적을 궁지에 몰아넣는 혁명의 적극적인 지류적 공격 형태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협상을 또 다른 혁명투쟁의 수단으로 인식했으며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협상 형태와 이번 고위급 접촉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을 통해 그들만이 원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 4.1 북한의 협상단계별 전술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협상에 임하는 일반적인 특

징은 특히 북한의 협상전술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남북 고위급접촉에서도 식별되었듯이 김용호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항상 변화무쌍하게 대응하지만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통상 네 단계를 거치는 협상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것을 이번 고위급접촉에 대입해 볼 수 있다.

#### 4.1.1 협상 전 단계

북한은 협상 전 유리한 협상환경과 의제를 모색하는데 이번 북한은 북한군에 의한 DMZ 목함 지뢰 도발 후 (표 2)에서와 같이 침묵하다가 일단은 오리발을 내밀고 추가도발을 하며 유리한 협상환경 조성을 위해 공갈과 협박을 계속하여 긴장을 유지하고 반복되는 협박과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협상을 더욱 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려했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제선정을 위해 노력했다.

<표 2> 북한군 고위급접촉 제의 과정 및 경과

구 분	주요 내용
공갈 · 협박	조선 인민군 공개 경고장(8.15)
	조선노동당 군사행동 위협(8.20)
	조선 인민군 총참모부 군사행동 위협(8.20)
	조선노동당 최후통첩(8.21)
	북한군 준전시상태 선포(8.21)
	북한 외무성 전면전 불사 입장 밝힘(8.22)
추가도발	14.5mm 고사포 1발 사격(8.20)
	76.2mm 직사화기 3발 사격(8.20)
접촉제의	조선노동당 공갈 후 접촉의사표명 (8.20)
	조선노동당 접촉제의(8.21)/정부 역제의
	북한 2+2 고위급 접촉 제안(8.21)

근거 : 청와대 및 국방부 8.15~8.21일 발표 제정리

즉, 이번 최초 DMZ 목함 지뢰 도발 이후 고위급 접촉까지 북한은 2015년 8월 4일 목함 지뢰 폭발사고 발생 후 8월 10일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특별조사팀의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일 국방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어 13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2회에 걸친 장성급회담 제의까지는 침묵하면서 거부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8월 15일부터 확성기방송 중단 요구와 대북심리전 수단 파괴 및 군사행동 개시를 경고한다는 공갈 및 협박 6회, 실제 포탄 사격으로 추가 도발 2회, 대화 및 접촉제의 3회 등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반복하는 도발과 공갈·협박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남북 고위급 접촉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

#### 4.1.2 협상 초기 단계

협상 초기에는 자신들의 접촉 목적에 입각한 최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서 벼랑 끝 전술로 주도권장악을 시도한다. 협상방법 면에서는 매우 공격적이고 비타협적인 자세로 나오며 일반적인 협상 원칙을 제시하여 상대의 동의를 구하면서 자신들의 제안을 먼저 논의하기를 요구한다.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도 북한의 협상 목표는 그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의 모독 즉, 우리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장비 철거였는데 일관성 있게 무조건 자신들의 의지만을 관철시키려고 했다고 한다. 이에 우리 측에서는 DMZ 목함 지뢰 도발의 시인과 사과, 재발방지책을 주문하였고 북측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다 들춰서 잘못을 따지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이냐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본질을 흐렸다고 한다. 이에 우리 측에서는 '그렇게 어물쩍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목함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 분명히 정리해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북측을 압박했다"고 했다.

#### 4.1.3 협상 중간단계

북한이 대화에 임하는 협상 중간단계에서는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타결내용과 합의에 이르는 방식을 모색하는데 때로는 요구사항을 증폭시키거나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며 의도적으로 계산된 벼랑 끝 전술과 지연전술을 사용하며 일부 의제에 관해 합의를 하거나 합의의 틀을 제시한다.

이번 북한 측은 회담 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번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유감 표명해줘야 하느냐'고 물었으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이슈인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들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4.1.4 협상 최종단계

합의나 거부를 위한 조치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은 정치적 합의를 선호한다. 남북을 막론하고 협상단은 재량권이 없거나 제한되므로 그들도 평양의 의사타진과 결심을 받아내기 위해 협상을 중단하고 기다렸다. 또한 합의문 타결을 협상종결로 보지 않고 합의사항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거나 파기한다. 이번 공동합의문 타결과정에서도 북한은 목함 지뢰 도발 책임을 단순 '유감' 표명과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도발의 시인과 사과, 재발방지는 관철된 것으로 보는 우리 측과는 다른 시각에서 협상을 타결하였다.

### 4.2 북한의 협상 패턴

6.25전쟁 중 1951년 7월부터 1952년 7월까지 정전협상 유엔 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조이 제독(C. Turner Joy)이 저술한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 하는가?」를 기준으로 북한의 협상 패턴을 크게 일곱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이번 남북고위급 접촉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진행, 그리고 결과를 보면 북한은 현재 국제정세에 따라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보이지만 첫째, '결론이 담긴 의제를 제시한다.' 협상에 임하는 공산주의자들은 협상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협상 의제로 제시해 놓고 그 전체 위에서 모든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한다. 즉, 이번에도 제일 먼저 제시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장비를 철거해라"라는 의

제가 그들의 주목적 의제였으며 나머지 의제는 주 의제를 협상하기 위한 수단 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계산된 돌발사건을 일으킨다.’ 이번 고위급 접촉 간에도 북한군은 포병의 전방진개와 사격 준비 태세 유지 또한 휴전 이후 잠수함의 대규모 기지 이탈, 특수작전부대의 전방진개 준비와 전군 준전시(準戰時) 상태’를 선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회담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긴장을 조성하는 계산된 돌발사건을 일으켰다. 셋째, ‘장애물을 조성하여 협상을 지연시킨다.’ 즉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양보할 수 없는 큰 것을 제시하여 협상을 지연시키다가 결국, 원했던 작은 것을 취하는 진술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북 제재 5.24조치 해제와 한미 연합훈련 중지 등이 장애물로 도출되었다는 보도는 없었지만 의제와 상관없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며 지연시키다가 결국은 원하는 것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기 위한 술수를 획책한다.’ 이번 공동합의문 2항에는 (표 3)에서와 같이 이번 우리 측 주 의제인 DMZ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이 명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라는 식으로 도발의 주체나 사과하는 사항은 빠지고 ‘유감’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기고 빠져나갔다. 이러한 술수는 언젠가는 도발을 시인하지 않았기에 합의사항 이행의무가 없다는 식의 부메랑이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결국, 협상에서 합의 간 양쪽이 동시에 만족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측은 ‘유감’이라는 단어 하나를 양보한 것에 큰 의미를 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타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 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다섯째, ‘거부권 행사와 논점 흐리기를 시도한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거부권 행사는 없었지만 논점 흐리기 측면은 할 수 없고 실현 불가능한 카드를 내밀어 거부를 유도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원하는 것을 취하였다.

<표 3>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 공동합의문

구분	주요 내용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했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근거 : 청와대 발표, 남·북 고위급접촉 결과 공동합의문

즉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수용되면 반대급부로 (표 3)과 같이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지극히 평범한 문구를 공동합의문에 포함하여 우리 측에게 많은 부분의 양보를 얻어낸 것이다.

여섯째, ‘진실을 왜곡하고, 상대방의 양보를 약용한다.’ 북한은 과거 천안함 포격 도발에 이은 연평도 포격 도발과 최근 DMZ 목함 지뢰 도발 등 일련의 도발이 명확한 사실에 대해 인정과 대책이 나와야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식의 뻔뻔함을 보이며 ‘유감’이라는 단어 하나 양보하고 몇 배를 취했다.

일곱째, ‘약속을 파기하고, 상대방을 지치게 만든다.’ 현재까지는 공동합의문 6개항에 대하여 파기된 사항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에 돌아간 총정치국장 황병서는 “유감표명은 사과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접하면서 우리의 정서는 인간관계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공산주의자들은 약속과 이미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다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지킨다.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도 마라톤협상을 통해 뭔가 빨리 성과를 내려는 우리 측의 조급증을 역이용하여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던 김정은의 권위를 되찾는 명분인 대북 심리전 방송 중지,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 남북 적십자실무접촉, 민간 교류의 활성화라는 실리를 얻었다.

## 5. 결론

이번 일련의 북한 도발은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협상전술 면에서는 기본적인 패턴은 유지하면서 지능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첫째, 협상 전 단계에서 유리한 협상 환경조성을 위한 연속적인 도발을 하였고, ‘심리전 방송중지’ 라는 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특히 올해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신년사에서 언급되었듯이 치적 쌓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기 면에서 한·미는 연합연습에 따른 유사시 연합전력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중국은 전승절을 앞두고 한반도의 분쟁을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은 실시간 더 이상의 도발을 확대할 의도가 없었을 것이다.

둘째, 협상 초기부터 심리전 방송중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시 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협상도 혁명투쟁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협상을 통한 공동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혁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초기단계부터 타결을 염두에 두고 많은 요구를 쏟아냈다.

셋째, 협상 중간단계에서는 합의에 이르는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공동합의문을 보면 황병서와 김양건은 고도로 훈련된 협상가이며 북한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가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그들은 김정은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죽을 것이고, 달성하면 살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살아남기 위해 상식 이하의 발언과 공갈

협박, 생떼를 쓰는 등 상상하지 못했던 카드를 내민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넷째, 합의가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는 작은 부분을 양보하는 척하며 결국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관철시켰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북 관계는 많은 회담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번 고위급 접촉 결과 공동합의문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몇 가지로 제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협상전술 연구이다.’ 과거 북한과의 여러 번의 협상 과정을 보면 사전에 준비되어 추진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실시간 대응하는 협상보다는 과거의 협상전술 연구를 통해 북한이 내밀 카드를 충분히 예측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식으로의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감각과 당시 처한 북한의 입장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하는 사전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관성 있는 원칙 적용이다.’ 이번 고위급접촉 결과 공동합의문 타결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이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대북 5·24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위한 협상의 타결보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협상에 임해야 했으며 대북원칙과 관련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는 원칙이 적용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상호주의원칙 적용’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조건 없이 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데 이번 협상 결과는 일방적으로 양보를 위한 양보보다는 줄 것은 주되, 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 시키는 상호주의 원칙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협상의 전문성 확보이다.’ 사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 임한 우리 측 대표는 선전했다와 미흡했다는 평가가 상존한다. 하지만 황병서는 군복만 입었을 뿐 군인이 아닌 골수 노동당원이며 김양건은 대남 사업에 잔뼈가 굵은 역전 노장인데 이들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안이한 대응을 하였으며 작은 결과에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하고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고위급접촉의 결과로 북한은 챙길 것은 챙기고 일부 형식적인 것은 양보하는 척하며 다양한 도발과 선전전으로 또다시 남남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이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며 모처럼 하나된 민심을 분열시킬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 참고문헌

- [1] 김도태, 차재훈.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1995. 12, 민족통일연구원
- [2] 김용호.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2000.
- [3] 송중환. “북한 협상행태 연구의 문화적 접근”, 『협상 연구』 8권2호(2002).
- [4] 임동원. “남북 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곽태환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서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 [5] 제성호, “북한 NPT 탈퇴에 대한 유엔제재와 그 효용성“, 한국자유총연맹, 자유공론 314, 1993.
- [6] 최대석, 정영철, 장인숙. “북한의 대남 협상전술과 주요 협상가”. 統一問題研究 2007년 하반기호 (통권 제48호)
- [7] 허만호. “북한의 협상행위의 특징”, 『국제정치논총』36집 2호(1996).
- [8] 스콧스나이더, 안진환역. 『벼랑 끝 협상』 (서울 : 청년정신, 2003).
- [9] 척 다운스, 송승중역. 『북한의 협상전략』 (서울 : 한울 아카데미, 1999).

### [저자소개]



김 규 남 (Gyu-Nam Kim)

1984년 2월 학사  
1998년 8월 석사  
2012년 2월 박사

email : baguni52@naver.com



이 현 희 (Hyun-Hee Lee)

1987년 2월 학사  
2008년 8월 석사  
2015년 8월 박사과정 (교신저자)

email : grace-kara@hanmail.net